

칼럼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회사인간

사회가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고 조직을 통해 작동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다. 피터 드러커가 '조직의 사회'라고 부른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고 그 안에서 회사는 정부와 군대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회사에서 관리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시기를 헨리 포드 사후로 본다. 포드는 개인기로 큰 회사의 모든 것을 관리했고 회계를 포함한 경영기법을 활용하지 않았던 마지막 기업인이다.

새로운 형태의 회사는 '커뮤터'라는 생활양식도 탄생시켰다. 이제 회사원들은 거주지에서 상당히 먼 곳의 직장으로 매일 출퇴근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전은 물론이고 지금도 다수가 기차(전철)를 탄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커뮤터가 "면도를 하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다시 면도를 하기 위해 기차를 타는 사람"이라는 비유도 유행했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현대적 대기업을 배출하기 시작했던 1960~70년대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무직군의 사람을 '샐러리맨'이라고 불렀다. 회사원들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개 10인 이내의 다른 회사원들과 함께 보냈다. '같은 부서' 사람들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 일에는 협동과 욕심, 경쟁, 위선, 증오 같은 감정을 포함하지 않지만 매일 매일과 인생을 좌우한다. 부서 내에서의 일상엔 협조와 성취, 동료애 같은 긍정적 요소들 외에 공포, 야심과 욕심, 경쟁, 위선, 증오 같은 감정도 지배당한다. 권력투쟁과 과별형성의 비옥한 토양이다. '사내 정치'라는 말이 생겼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체널'도 생긴다.

많은 회사원들이 출근과 상사와 동료를 겁낸다. 조지프 핼러가 1974년에 쓴 책은 회사를 창업자 회장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공포의 체인으로 묘사한다.

회사에서는 유폐하지 않은 날이 더 많다. 부서가 황폐한 곳이 되면 회사뿐 아니라 가족도 파멸하게 된다. 일을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 심리적 갈등이 초래되고 성격상의 장점도 상실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직하지 못한 캐릭터의 탄생이다. 물론, 회사 안에서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퇴근하면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친다.

회사원에게 승진은 최고의 보상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의사가 병원이 되고, 기자가 사장이 된 후의 생활이 다르듯이 엔지니어가 생산관리 임원이 되고 심지어는 지주회사로 이동하는 것은 달갑지만은 않다. 그러나 승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가족들은 언제나 급여인상을 고대하고 있다. 또 승진은 회사원의 사회화를 강요한다. 기계를 서류가 아닌 회사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 이제 내부에서의 인원은 수백 명이다. 수백 명의 권력투쟁을 다루어야 하고 본인도 더 큰 권력투쟁에 내몰린다.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과 하급 사무직에게만 의미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회사 일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일들로 인생이 채워진다. 대기업 임원이 되면 친구를 만나도 회사 일과 무관하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가 인생의 사실상 전부다.

'회장님'에게는 사업 능력 외에도 사회적인 평판과 전방위적 영향력이 중요해졌다. 임직원 레벨에서 신규세대 총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너 레벨에서도 세대총동이 있다. 신세대 오너들은 사업 외에도 부자들

식간에 경영대학에서 배운 회사 표준 모델을 집착한다. 표준 모델은 회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의 압력이 많이 작용한 것이다. 표준 모델은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자산을 필요하게 한다. 사회적 자산은 상속되는 데 한계가 있어 회사 밖 활동에 쓰는 시간이 많아진다. 전문경영인이라고 불리는 회사원들의 역할이 커진다.

회사원 진화의 가장 최근 계기는 실리콘 밸리다. 좁은 사무공간, 출퇴근, 부서 내 위계질서,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불편함과 다름 등등을 대거 없애 준 것이 애플, 구글이 상징하는 기업문화다. 19세기 말부터 형성되었던 고전적 회사 모델이 자유성을 본질로 하는 대학 문화와 융합되었다. 대학을 갖 나온 창업자들이 대거 성공한 것도 주효했다. 회사 경영에서 엔지니어 출신들이 다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새 조류다.

이제 코로나19가 회사원을 다시 진화시키고 있다. 부서 내 사회적 생활은 물론이고 부서 생활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인간의 사회적 경쟁력에서 사회적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인사'들의 전성시대가 저문다. 그러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기업 모델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회사 조직이 거의 200년의 역사를 거쳐 이제 '포스트 실리콘 밸리' 모델로 재탄생할 것 같다. 샐러리맨도 유폐한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社說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 거는 기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노상상생발전협정서 파기선언을 했던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전격적 복귀와 함께 광주시 등과 맺은 협의를 이행하는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광주시는 당시 가장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설립해 운영키로 하고 상생위원회 설치, 노상상생발전협정서 이행 등을 약속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역할 수행 뒷받침, 광주형일자리 교육훈련, 사회연대 일자리기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단 설립 추진단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재단 설립 추진단은 단장 포함 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등을 맡는다. 아울러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재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까지 임시적으로 수행한다. 설립추진단은 상생일자리재단의 구체적 역할 모색과 노상상생 현안 논의의 장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형일자리 절학을 현실에 구현하는 플랫폼이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은 만큼 순항하길 바란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노동계도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시정연대 일자리기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형일자리사업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문제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 사업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더구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상생일자리재단의 순조로운 출범이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뜻 깊은 현충일과 6.25기념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맞이하는 올해 6월은 그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크다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순국선열이나 호국보훈이란 말이 생소해 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하여 국가 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 분들에게 보답하는 자세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피와 땀에 의한 숭고한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이웃에 거주하는 호국가족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

돌아 볼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서도 후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생계가 곤란한 호국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나라 사랑을 다지는 뜻 깊은 달이다. 때마침 경찰에서는 올해 6월22

일부터 9월19일까지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평화사랑을 주제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평화에 대한 중요성 고취와 애국심 함양을 도모할 예정이다.

UCC와 사진, 포스터에 소질이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푸짐한 상장과 부상을 받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나라 사랑의 정신이 나날이 희미해져가는 지금 6월 한 달 동안 만이라도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아보자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